

물, 그늘, 휴식?

타설 현장에는 오로지 물만 있었다

박세중 회원, 건설노조 노안국장

지난 8월 마지막 주, 광주에서 콘크리트 타설 일을 했다. 건설노조에서 일하다 보니 어느 자리에서나 스스로 건설노동자라 칭하지만, 사실 현장 경험은 없다. 나는 건설노동자가 아니었다. 조합원 말씀을 받아 겨우 아는 척하는 건 아무래도 부족했다. 체험이라도 해야 한다고 여겼는데, 마침 기회가 주어졌다. 광주전남 건설지부에서 ‘여름 타설 일이 너무 힘들어서 대학생 알바를 써도 다 도망간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혹시 제가 일해보도 될까요?” 쉽지 않을 거라면서도 흔쾌히 오라고 하셨다.

안 그래도 더위를 많이 타고 땀도 엄청난데 괜찮겠냐는 염려도 들었다. 그래도 8월 말이면 더위도 조금은 가시겠다 싶었는데 웬걸, 더위도 너무 더웠다. 일하는 중간중간, 지금 혼자만 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구석에 가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광주는 서울보다 2도쯤 더 높았다. 지어지는 아파트 맨 위층 땡볕 아래 타설 작업장에서 온몸으로 더위를 받았다. 그나마 가장자리 갱폼에 쳐진 얼기설기 가설 커튼으로 한 뼘 그늘이 지면 그 아래서 한숨 돌렸다.

더위만큼이나 타설공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작업 특성상 쉬기 어렵다는 점이다. 콘크리트 타설은 끊기면 안 된다. 굳기 전에 계속 이어서 타설해야 한다.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새 콘크리트를 이어서 붓는 경우 일체화되지 못해 줄눈이 생기는 것을 콜드 조인트라고 한다. 부실공사의 한 원인이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30분을 넘기지 못한다. 레미콘이 바뀌어 펌프카가 멈출 때 잠깐뿐, 쉬는 건 재량에 달렸다. 현장에 완벽한 휴게실이 있다 해도 타설공과는 무관한 이야기다. 노동부는 ‘물, 그늘, 휴식’이 폭염 대책이라는데, 타설 현장에는 오로지 물만 있을 따름이다.

타설 일을 하면서, 이전과 이미지가 아예 바뀐 것은 바로 갱폼이다. 갱폼은 건물 외벽에

매달린, 작업 발판이 일체화된 초대형 거푸집을 말한다. 지금까지 갱폼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갱폼을 해체할 때는, 타워크레인 등에 매단 뒤에 볼트를 풀어야 하지만, 갱폼 볼트 일부를 미리 풀어놓는 일이 다반사다. 갱폼과 함께 추락해 사망한 건설노동자를 추모하며 ‘무리한 속도전’을 규탄하는 성명을 쓴 적이 있다. 첫날 갱폼 발판을 디디며, 나 또한 추락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벌벌 떨었다. 그런데 직접 일해보니 갱폼은 타설 노동자의 휴게실이자 작업 발판이고 자재 창고며 이동통로였다. 물론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이런 생각할 여유도 없어졌지만 말이다.

아파트 준공 뒤, 꼭 한 번 다시 가자

대개 타설 작업은 6~7명이 한 팀으로 일한다. 1명은 분배기를 잡고 콘크리트를 붓는다. 계단, 기둥, 보, 벽, 바닥 순으로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한다. 타설될 현장은 알폼이라는 거푸집 위에 가로세로로 철근이 배근되어 있고 튜브에 싸인 전선이 여기저기 놓여 있다. 철근이 성긴 곳은 알폼을, 촘촘한 곳은 철근을 밟아야 하는데, 콘크리트를 붓고 나면 철근이 보이지 않는다. 철근에 발이 끼어 넘어질 뻔하거나 장화가 벗겨질 뻔한 적이 많았다.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를 만지고 밟으며 일해야 하니 안전 장화를 신고, 온코팅장갑을 끼는데, 무더위에 땀이 차니 손발에 물집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1명은 바이브레이터를 들고 구석구석 공극 없이 콘크리트가 채워지게 한다. 1명은 바이브레이터의 모터를 드는데, 초짜가 맡는 일이다. 이 세 명 모두 엄청난 진동과 소음에 노출된 채 일할 수밖에 없다. 잠깐 모터를 들어봤는데 너무 무겁고 뜨거웠다. 모터를 어깨에 멘 채 바이브레이터의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 뒤로, 옆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철근을 디딜지, 알폼을 디딜지 잘 안 보이는데다, 빠죽 수직으로 솟아 있는 철근에 찢기지 않게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몇 번이고 넘어질 뻔 위태위태하게 휘청대니 다른 팀원이 모터를 받아 가신다. 괜히 현장 일을 해본다고 했나, 송구한 마음뿐이다. 나머지 인원은 밀대와 세손을 들고 ‘텐바’라 불리는 높이 표시선에 맞춰 평탄화 작업을 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문지른다. 마지막으로 땡벌에 표면이 갈라지지 않도록 비닐을 덮으면 작업이 마무리된다. 5시 반에 숙소를 나와 17시 넘어서 퇴근이라니! 10시간에 달하는 긴 노동시간에, 부상의 위험은 여느 건설노동자 못지않다. 직접 체험해 보니 타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겠다 다짐하게 된다.

아파트가 준공한 뒤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 그리고는 여느 건설노동자처럼 자랑스레 이야기하겠지. 이 아파트 내가 지었다고. 